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에 다행스럽게 날이 많이 춥지 않은 요르단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어 다시 금요일마다 lockdown 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렇다 할 통제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할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가정 소식

요르단 교육부는 코로나 안전 수칙에 따라 학교를 열고 학생들이 등교 할 수 있도록 공식 발표를 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학교 등교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이고 점차적으로 학년과 요일을 나누어 등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계속적인 비자 문제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작년 11 월 대학에서 클래식 아랍어 언어 과정을 신청하면서 3 개월에 걸쳐 너무나 감사하게 1 년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계속 적인 비자의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저희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역 소식

계속적인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여전히 대면해서 사람들 만나거나 센터의 문을 열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준비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가정을 위한 양육과 후원 연결, 예배에 은사가 있는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가정과의 교제, 다양한 사역 사례와 나눔 협력 방안 모색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희와 주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현지 지역 센터의 센터장과 앞으로 계획을 의논하면서 여름 썸에 센터를 다시 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와의 협력 과 장기적인 사역을 같이 하려는 한국에서의 단체와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기대치 않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태권도 도장에서 여름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직접 대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여기 요르단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새 학기 일로 학교 관계자 모임 이후 확진자가 생겨 학교 등교가 연기 되었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 하반기 썸 점차적으로 사역이 회복되고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소망을 더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3. 아이들 학비가 채워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